

한국의 대척점 우루과이에서 찍은 또 하나의 ‘점’

- 이름 : 김지영
- 근무기구 :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 부서명 : 협정 및 협상 부서(Departamento de Acuerdos y Negociaciones),
중남미-아시아태평양경제연구소(Observatorio América Latina - Asia
Pacífico)
- 직위 : 인턴
- 지원 경로 :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
- 근무 기간 : 2015.9.1.-2016.2.29.

낮설기만 한 국제기구 인턴에 지원하기까지

수많은 청춘들이 그렇겠지만 여느 대학생보다도 나는 더욱 더 학부 4년 내내 진로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진지하고 무거운 진로 고민은 옆으로 제쳐두고 싶었고 내 행위의 동기가 필요가 아닌 욕망이 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나는 스티브 잡스의 ‘connecting the dots’를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이 그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저 내가 즐기는 걸 찾아서 하면서 언젠가 연결될 점들을 만드는 것이 나의 대학 생활 과제였다. 결국 졸업을 코앞에 둔 순간까지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는 형성되지 않았다. 대신 그동안 전공 수업 수강, 동아리 활동, 교환학생, 봉사활동, 여행 등의 점들을 연결해보며 확고해진 것이 있었다. 외국어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것이 즐겁고 내 적성에 맞다는 것과 중남미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 관심이 깊어졌기에 중남미와 내 커리어를 분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막연하지만 본능적으로 한국이 아닌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싶다고, 일해야겠다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부터 눈여겨 봐왔던 외교부 중남미국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프로그램에 ‘이제는 이 경험이 나의 필요와 욕망을 모두 충족시켜줄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의 점을 찍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다.

기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전공 수업을 들으며 발전시켜 온 관심사와 전임 인턴들의 후기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이라는 주제는 라틴아메리카학 전공 수업에서 자주 등장했는데,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 통합의 가능성과 통합에 따른 잠재력 성장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따라서 중남미에서 인턴을 한다면 나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는 기구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다. 이러한 점에서 라틴아메리카 주요 13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지고 있으며 역내 교역 확대 추진과 점진적인 라틴아메리카 공동시장 달성을 목표로 하는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는 나에게 딱 맞는 기구였다. 이 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며 실제로 그에 기여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생활에 중요한 물가나 치안 등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전임 인턴들의 후기를 참고해 해당 기구의 소재지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의 생활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에 지원하게 되었다.

ALADI의 인턴 업무에 대해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에 오는 한국인 인턴들은 두 부서에서 3개월씩 일하게 된다. 각 부서의 업무를 소개하고 나의 시각에서 본 장단점을 정리해보겠다. 첫번째는 중남미-아시아태평양경제연구소(Observatorio América Latina - Asia Pacífico,)이다. 이 부서에서 인턴이 맡는 주 업무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에 관한 기사를 일간, 주간 단위로 찾아서 보고하는 것이다. 이 업무의 단점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이 필요없고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쉽게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주 유익하기도 하다. 매일 영어 혹은 스페인어로 방대한 양의 기사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 실력이 향상되며,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의 협력과 경제 흐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된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와 경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커리어를 쌓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될 업무이다.

두번째는 협정 및 협상 부서(Departamento de Acuerdos y Negociaciones, 이하 DAN)이다. 이 부서는 말 그대로 ALADI 회원국들 간의 협정과 협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DAN에서는 학생이나 수출입 관련업자의 자문에 응하는 사소한 일부터 회원국들 간 무역의 기반이 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사실 DAN은 Observatorio처럼 인턴에게 고정된 한 가지 일을 배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여러 일을 맡긴다. 따라서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배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틀에 대해 설명해주고 배경지식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단기간에 부서의 업무에 대해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DAN의 인턴으로서 했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한 가지는 ALADI 자체의 데이터베이스 SICOEX(Sistema de Información de Comercio Exterior)와 관련된 일이다. 나는 협정별 국가 간 특혜관세 적용률을 비교하며 오류를 찾아냄으로써 특혜관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도왔고, 회원국들이 ALADI에 통지하는 기술적 규제/규격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일을 맡았다.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업무 자체는 단순했지만 이러한 업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역내 무역의 기반이 되는 ALADI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다른 한 가지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제 6차 개정안에 따라 2017년부터 변경될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기호)를 반영해 ALADI의 상품분류기호 목록인 NALADISA를 수정하는 일이었다. 먼저 WCO에서 받은 제6차 개정안에 따른 변경사항이 각 코드에

해당하는 상품에 어떻게 반영될 지 하나하나 설명하는 문서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이는 회원국들 간의 최종회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였다. ALADI에서 열린 10개국 대표자들 간의 회의에서 현 NALADISA의 오류 수정 및 제 6차 개정에 따른 NALADISA의 변경 사항 최종 확정 이 이루어졌다. 회의 준비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었던 덕분에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볼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 내가 준비한 자료가 회의에서 쓰이는 것을 보니 뿌듯했고 500페이지가 넘는 품목에 대해 변경 사항을 일일이 짚어가며 건의하고 의논하는 전문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NALADISA의 최종 버전을 작성했고, 향후 최소 5년간 라틴아메리카 회원국들 간의 무역에 쓰일 상품분류기호 목록이 내 손을 통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업무 외적인 부분에 대해

ALADI는 지역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라틴아메리카 13개 회원국 출신이다. 이곳에서 내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려심 넘치는 동료들, 가족같은 분위기, 좋은 복지였다. 상사와 동료들은 나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충분히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기다려주었다. 나의 관심사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하고 난 뒤로는 각종 문화행사가 있으면 따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고, 내가 스페인어 시험에 응시했던 날에는 출근했던 나에게 되려 왜 나왔냐며 집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권유해서 몸들 바를 몰랐던 기억도 있다. 그리고 직원들은 항상 서로의 생일을 가족같이 챙기며 직접 파이나 컵케익을 만들어와 파티를 했고 누군가가 떠나면 송별회도 잊지 않았다. 복지도 인상적이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험을 위한 휴가가 따로 있고, 1일 병가는 의사소견서 없이 연 10회가 가능하며, 한 달에 근무시간 중 7시간은 개인 사정에 따라 조퇴 등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친척의 결혼 때문에, 심지어 다른 직장의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휴가를 쓰는 동료들을 보았다. 이곳은 무엇보다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믿고 존중해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LADI의 또 다른 큰 장점 중 하나는 배울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ALADI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 강연,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통 근무시간에도 자유롭게 가서 들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시청각 교육과 영화 언어'라는 세미나에서는 어떤 우루과이 영화감독이 본인이 만든 학생 영화제의 제5회 개막을 기념하며 영화 산업에서 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했다. 여러 강연들 중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내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강연이다. 강연자는 라틴아메리카의 1차 상품 위주 수출 경제 구조를 비판하고 반성하며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화 노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국가별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 속도가 매우 불균형함을 지적하고, 역내에서 협력이 이루어진 선례를 들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기술을 공유

하고 경제적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협력의 필수성을 역설했다. 전공자로서 한국에서 수업을 통해 배웠던 주제들이 실제로 현지 기업가와 정책가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것을 목격하니 마치 살아 숨쉬는 책을 보는 것 같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강연은 ALADI가 나에게 옳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다.

중남미에서의 국제기구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아직 전문성이라고는 없는 일개 대학생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진출 방법'이라는 거창한 말을 내세워서 조언을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부터 실제 업무를 하기까지의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정말로 원한다면 지레 겁먹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도 국제기구는 너무 낯설었고 '과연 내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턴을 위한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남미의 정치, 경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설령 인턴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나에게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부한 조언일 수도 있고 중남미 지역기구 진출을 꿈꾼다면 이미 지각하고 있겠지만, 스페인어 실력을 최대한 쌓아 오기를 바란다. ALADI의 공식언어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이다. 아무래도 모든 구성원이 스페인어 모국어 화자인 탓에 다른 국제기구들과 달리 영어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도, 개인적인 배움에 있어서도 스페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업무내용이 유연한 인턴같은 경우 본인의 역량에 따라 해낼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다. 포르투갈어는 알면 DAN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몰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

마지막으로 ALADI에 좀 더 국한된 조언을 하자면 오기 전에 무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오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ALADI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2주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하며 무역 정책 등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내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많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국제기구 인턴십 경험이 나에게 남겨준 것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무언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 내가 태어나서 받을 디데 본 13개국 중 가장 여유롭고 한적한 국가라고 느껴진 이 곳 우루과이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수

확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규정지어왔던 것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대척점이라는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사회적, 경제적 구조로도 한국과 상당히 먼 우루과이를 보면서 '어떤 삶을 추구할 때 더 행복해질 것인가', '한국 사회의 문제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통해 이와 같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턴십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진로들 중 하나였던 국제기구가 이번 경험을 통해 더 구체적인 미래로 다가오면서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고, 라틴아메리카학 내에서도 관심사를 좁히고 전문성을 쌓기 위해 심화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ALADI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딛을 것인지를 알려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점을 찍고 돌아간다. 이 점이 중남미 전문가로 성장할 미래의 나에게 필수 불가결한 경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